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관세 물가 여파 시작되며 미 인플레 2.7% 상승
- Bloomberg: 트럼프의 연준 후보자, 금리 인하 선호
- Bloomberg: 뉴욕 제조 활동, 5개월 만에 처음 확장

[미국 금융]

- Bloomberg: 인플레 둔화 지표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채권 시장 랠리 감속
- WSJ: JP모건 실적 상승...시장 변동성과 미 경제 안정으로

[무역전쟁]

- Bloomberg: 트럼프, 'AI 주도'의 미국 강조 연설한다
- WSJ: 엔비디아, 중국에 AI 칩 판매 허용되다

[주택]

- CNBC: 미 주요 주택 시장의 3분의 1은 주택 가격 하락

[오일]

- WSJ: OPEC, 원유 수요 전망 안정적으로 유지...무역 성장 예상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에어택시 제조 Joby, 캘리포니아 공장 생산량 두 배로
- Bloomberg: 우버, 중국 Baidu와 손잡고 로보택시 출시
- CNBC: 스타벅스, "주 4일 사무실 복귀 아니면 퇴사하라"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Picks Up to 2.7% as Tariffs Start to Seep Into Prices

관세 물가 여파 시작되며 미 인플레 2.7% 상승

- 6월에 미 물가가 연율 2.7%로 전월의 2.4%에 비해 상승했는데, 회사들이 관세 물가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신호로 보인다.
- 특히 가구 제품, 비디오, 오디오, 장난감, 의료 가격이 상승한 반면에 신규 차량 가격은 내렸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의 가격 여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가격에 여파를 주었는지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Fed Chair Contender Is Now in Favor of Cutting Rates, Just as Trump Wants

트럼프의 연준 후보자, 금리 인하 선호

-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트럼프가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전 연준 이사 Kevin Warsh는 인플레이 상승을 우려하는 매파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제는 금리 인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를 바라보는 시야와 인력 등에 대대적인 개편을 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은 연준에 흔적을 남기려는 트럼프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그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데 '분명한 확신이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금융 위기를 충분히 경험한 훈련된 인물'이라는 평도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York Factory Activity Expands for First Time in Five Months

뉴욕 제조 활동, 5개월 만에 처음 확장

- 6월 뉴욕주 제조 활동이 강한 주문과 출하량으로 인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 오늘 화요일 뉴욕 연준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 일반 비즈니스 여건이 21.5 포인트 늘어난 5.5를 나타냈다. 제로 이상은 확장을 의미한다.
- 자재에 현재 가격을 지불한 지수는 9포인트 이상 늘어난 56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가격 지수는 거의 1포인트 줄어들었다.
- 6월에 이어 향후 6개월간 비즈니스 여건 전망도 크게 상승했다. 현재 신규 주문도 16포인트 이상, 출하 지수는 거의 19포인트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Rise and Treasury Yields Fall on Tame CPI: Markets Wrap

인플레이 둔화 지표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채권 시장 랠리 감속

- 오늘 화요일 발표된 인플레이 둔화 지표(인플레이는 상승, 근원 물가 상승세는 예상보다 줄어)에 랠리를 보이던 주식과 국채는 관련 물가 지표가 연준의 인플레이 인하 전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 기술주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국에 대한 일부 칩 판매가 허용된 엔비디아와 AMD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투자자들은 미 대형 은행의 엇갈린 실적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 S&P 500은 6,300까지 일시 상승했다 멈춰 섰는데 매그니피센트 7은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입어 1% 상승했다.
- 웰스파고는 순이자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반대로 JP모건은 예상외의 실적 상승, 시티뱅크는 매출 증가 실적을 발표했다.

Bloomberg 기사

WSJ: JP Morgan Earnings Show Economy and Wall Street Are Still Chugging Along

JP모건 실적 상승...시장 변동성과 미 경제 안정으로

- JP 모건의 2분기 수익은 예상외로 상승했는데 안정된 미국 경제와(트레이딩 및 수수료 수익 증가를 일으킨) 시장 변동성 때문이다.
- 투자자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온 가운데 투자 बैं킹 수수료는 7%, 트레이딩 매출은 15% 상승했다.
- JP 모건 카드의 소비자 지출이 7% 증가했으며 고객들의 높은 잔고로 이자가 발생하여 은행 매출이 증가했다.

WSJ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rump Set to Outline AI Priorities in Speech Asserting US Edge

트럼프, 'AI 주도'의 미국 강조 연설한다

- 트럼프는 미국이 인공지능을 주도하려는 비전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달 말에 AI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트럼프는 구체화 될 경우, 이에 행정 명령 서명할 예정이다.
- 트럼프와 행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중국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우세한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Nvidia Wins OK to Sell AI Chip to China Again After CEO Meets Trump

엔비디아, 중국에 AI 칩 판매 허용되다

-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허가로 H20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이 회사는 중국에 대한 AI칩 수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진 대중국 수출용 AI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
-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허용 조치를 미국이 중국과의 유화적인 무역 회담에 대한 신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WSJ 기사

[주택]

CNBC: Nearly one-third of major U.S. housing markets now see falling home prices

미 주요 주택 시장의 3분의 1은 주택 가격 하락

- 주택담보대출 기술 회사 ICE에 따르면, 올해 6월 연간 주택 가격 성장률이 1.3%에 그쳐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전국 상위 100대 주택 시장 중 거의 3분의 1이 최근 연간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단독 주택 가격은 1.6% 상승한 반면, 콘도미니엄 가격은 1.4% 하락했다.
- 6월에는 주택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6%를 맴돌았다. 이는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팬데믹 초기의 두 배 수준이다.
- ICE는 주택 재고 증가가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거래 기간이 늘어나 주택 소유주들이 점점 매물을 내놓기 꺼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오일]

WSJ: OPEC Expects Progress on Trade, Holds Oil-Demand Outlook Steady

OPEC, 원유 수요 전망 안정적으로 유지...무역 성장 예상

- OPEC이 향후 무역 긴장 완화를 예상하며 기존 원유 수요 예측을 유지했다.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은 하루 129만 배럴, 내년에는 128만 배럴로 전망하고 있다.
- 이러한 예측에 따라 OPEC 전체 원유 생산량은 하루 2,720만 배럴을 기록했다.
- 몇 달간 과잉 공급 시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은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 추가 수요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 내 이견은 없는 상태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ir Taxi Maker Joby to Double California Plant's Output Capacity

에어택시 제조 Joby, 캘리포니아 공장 생산량 두 배로

- 항공 택시 스타트업 Joby가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공장에서 연간 최대 24대의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오하이오 신규 공장에서는 이미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 Joby는 배터리 구동 에어 택시를 통해 단거리 통근 승객을 위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 이들은 최근 2026년 초까지 두바이에서 상업용 여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 최근 시험 비행 성공 발표 이후, Joby의 주가는 약 34%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를 이끌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ber Teams Up With China's Baidu on Global Robotaxi Rollout

우버, 중국 Baidu와 손잡고 로보택시 출시

- 우버가 중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Baidu와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과 중국 본토를 제외한 여러 시장에서 글로벌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 양사는 Baidu 자율 주행차가 올해 말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우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화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고, 수천 대의 차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향후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발표했다.
- 이번 발표 이후, 우버의 주가는 최대 1.4%, 바이두는 7% 급등했다.

Bloomberg 기사

CNBC: Starbucks employees to return to the office four days a week — or take a payout

스타벅스, "주 4일 사무실 복귀 아니면 퇴사하라"

- 스타벅스가 10월부터 직원들에게 주 4일 근무 의무화를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는 “자발적 퇴사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스타벅스 CEO Brian Niccol은 “이러한 판단이 스타벅스에게 옳은 길이다”고 말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매출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보였다.
- Niccol은 2월에 운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1,1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공석을 채우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주 3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 경고했다.
- 이러한 출근 복귀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월마트, 구글 등 대기업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트럼프, 곧 100 조원 규모 AI·에너지 투자 계획 발표"

AI 개발 가속화...데이터센터·발전시설 확장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가속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 일(현지시간) 700 억 달러(약 97 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4 일 보도했다.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열리는 '제 1 회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혁신 서밋'에 참석해 신규 데이터 센터, 발전 시설 확장, 전력망 인프라 개선, AI 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